

#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_경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6.08.30~2016.12.18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위치는 다운타운에서 Sky Train으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규모는 College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작았으나 웬만한 시설은 다 갖추고 있었다. 도서관은 항상 자리가 부족해 점심시간 이후 자리 전쟁을 해야만 했다. 확실히, University로 들어가기 위한 College라서 그런지 domestic학생들보다는 International Students들이 정말 많았다. 가면 각국의 학생들, 특히 Indian 과 Chinese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다.</p>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수업은 정말 Academic한 것을 배웠다. 만약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이곳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곳은 확실히, 편입전문 대학이라서 그런지 정말 Writing, Reading, Listening 위주로 수업을 했다. 교사마다 수업 방식이 달랐지만, 대체적으로는 2주차가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각 영역을 시험 보는데, 이걸 후에 점수에 반영된다. 과제의 양은 레벨마다 달랐지만, 매일 빠짐없이 나와 소원이 제발 과제 없는 하루가 있었으면 할 정도다. 수업시간에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제일 필요로 하다는 걸 느꼈으며, 여기서도 조별 과제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p> <p><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사실, 딱히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했으나 싶을 정도로 홍보도 잘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고자 하면 수업시간과 겹쳐서 참여하지 못했다. 담당부서는 International 부서가 따로 있었지만, 교환학생뿐 아니라 College학생들도 그들이 관리해줘야 하는 것 같아서 따로 특별한</p>

	부서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만약, 있다면 Homestay관리하는 부서, Fee를 받는 부서 정도이다.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건조하다. 내 친구는 생전 피부에 아토피라고는 없었던 친구인데, 밴쿠버에서 피부에 아토피처럼 올라와 엄청 고생했었다. 나 또한, 목 주변에 빨갱게 일어나곤 했었다. 9월 까지는 날씨가 좋다. 비도 오지 않고, 햇볕도 쨍쨍하게 쬐지만 10,11월로 들어가면 한 달 내내 비가 온다. 오죽하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햇볕 비친다고 기쁘다고 오늘은 꼭 수업 끝나고 나가서 햇볕 맞으라고 한 과제를 내줄 정도였다. 12월은 눈이 끊임없이 오는데, 심지어 Final Exam 날짜도 눈 때문에 변경되었었다. 유의점은 만약, 밴쿠버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무조건 신발은 레인부츠, 또는 정말 한 겨울에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챙겨가는 것이 가장 좋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그렇게 위험하다고는 느끼지 못했다. 딱히, Downtown East를 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는 안전하면 안전했지 무섭거나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다만, 노숙자들이 정말 많다. 한국 노숙자들처럼 해코지는 하지 않으니, 겁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 외부 숙소( ) 기타( )</i></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밴쿠버에서 마음고생 한 것이 이것 때문이었다. 문화적 차이를 맞춰 가야 하는 것 때문도 있지만, 사람 사이에 감정 문제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겪은 일이라 무조건 'Homestay 추천하지 않아요.' 라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간섭 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의무적으로 지내야 하는 2달 이외에 시간은 외부 숙소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홈스테이 비용으로 한 달에 800달이나 지불하는데, 정말 돈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정말 나와 맞지 않았다. 맛을 떠나서 사람이 배부르면 맛있어도 그만 먹고 조금만 먹을 수도 있는데 주인아줌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그만 먹거나 조금만 먹으면 내가 음식 맛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매번 나에게 물어봤고, 이건 정말 스트레스였다. 그래서 억지로 배가 불러도 끝까지 다 먹고, 매번 저녁시간마다 괴로웠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놀다 보면 외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주인아줌마는 내</p>

	<p>음식이 맛이 없어서 나가서 먹는다고 생각한 것조차 나에게 스트레스였다.), 800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 잘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한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 홈스테이 ( √ ) 외부식당 ( √ ) 직접 요리 ( ) 기타 (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주로 외부식당을 이용했다. 밴쿠버에 온 만큼, 맛 집을 다녀보고 싶었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 한식당도 많이 갔었다. 학교 내에는 초밥식당, 햄버거 등 다양한 식당과 Timholton이 있어 간단하게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다. 점심은 홈스테이 주인아줌마가 싸준 점심으로 주로 해결하곤 했는데, 아줌마가 점심을 싸주지 않거나 아니면 매번 샌드위치, 저녁에 먹다 남은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싸주곤 할 때는 사먹거나, 저녁은 외부식당 아니면 홈스테이에서 먹었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다행히도 홈스테이 한 집이 학교와 가까워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홈스테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나와 내 친구는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같이 온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스 타고 40분, 걸어서 2시간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밴쿠버에 도착해서 Compass Card를 사면, 지하철과 버스 다 이용 가능하며, 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경우 monthly pay(\$99)를 끊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1Zone 과 2Zone으로 나뉘져 있는데, 2Zone은 1Zone에 비해 지하철 값이 더 나간다. Downtown은 1Zone에 위치하고 있으며, Langara 49<sup>th</sup> Station에서 20분 정도 걸린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061,200원	'트레벨하우' 앱 이용
Fees	픽업 비용 : \$75 학교에 내야하는 비용 : \$1020	
보험료	6만원 정도	국내에서 해외 여행사 비용으로 샀으며, 한화보험으로 납부. (보통, 학교에서 권장하는 보험을 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Langara의 경우 6개월 미만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않아도 됨)
숙소	\$한 달에 \$800 / 1일에 \$26	
식비	\$200	Tip과 Tax까지 포함되어 외식비용이 생각보다 비쌘.
교통비	\$50~60	
책값	X	Level 4부터는 책을 사지 않아도 됨.
여행비	시애틀 : 약 \$150 (1박2일) 빅토리아 : 약 \$150 (1박2일) 로키산맥 : 약 \$300 (3박4일)	
쇼핑	약\$500 이상	한국보다는 옷이 저렴할 수 있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 않음. 심지어 캐나다 브랜드라도 한국 온라인 가격이 더 저렴함. 블랙프라이데이 때 모든 것이 할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만 겨냥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은 아니 라고 봄. 만약, 그 전에 샀는데 블랙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한다면 영수증 지참해 가면 차액 받을 수 있음.
기타3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추천하지 않는다. 레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커리큘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가 있으나, 그래도 나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반 이상의 영어 수준이 나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발 겨울용 신발과 레인부츠 꼭 챙겨가야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아도 패딩은 무조건 챙기고 가을용 외투 한, 두 개, 코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공산품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양말은 넉넉히 챙겨오고, 학용품도 넉넉하게 챙겨오면 좋다. Maple 과자 생각보다 별로였다. 그리고 팀홀튼에서 파는

아이스캡은 정말 꼭 먹어야 된다. 나는 매번 빠짐없이 주말에도 먹고 싶어서 Okridge Mall에가서 사 먹을 정도로 정말 중독성 있는 음료인데 그게 그리워서 Power를 사 갖고 한국에 왔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처음으로 교환학생을 가, 다른 나라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토론하고, 이것 저것 하다 보면 내가 캐나다에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가끔, Downtown 걸어가며 여기가 한국인데 외국인들이 놀러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익숙해 졌었다. 약 4달 동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끝 마침이 다가오니 향상 된 것이 있거나 싶을 정도로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름 외국인 친구들과의 만남과 추억을 쌓아간다는 생각이 제일 보람찼다. 처음엔 낯설고 무섭고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시차적응이었다. 8월 30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시차적응도 하지 못한 채로 학교에 가야만 했었다. 매번 새벽에 깨서 한국을 그리워 하곤 했었지만, 시차적응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잘 잤다. 낯설고, 수업방식이 적응하기 어렵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언제 내가 이런 수업을 들어보며 언제 내가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나름 알차고 보람차게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English Bay – 자전거 타고 가기 딱 좋아요!</p>	<p>Lake Louise</p>



Banff



Level 5 당시 잉카 문명 조별 발표 연습



With. Paul teacher & Kemmie



Seattle